

근대문학과 카페

박 숙 영*

<차 례>

1. 들어가며
 2. 근대시와 카페 : 내면적 성찰과 몽상
 3. 근대소설과 카페 : 카페 여급과 무기력한 지식인의 생태
 4. 맺음말
-

1. 들어가며

서구 근대 사회의 카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광장 같은 공간이었다. 그곳은 사회적인 억압이나 제약 없이 정치적인 토론을 할 수 있었고, 새롭게 쏟아지는 각종 정보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열린 장소였다.

예술가들은 적은 돈으로 한 잔의 커피나 음료를 시켜놓고 편안함과 여유를 즐길 수 있었다. 무엇보다 “예술가들이 카페를 자주 찾은 이유는 다채로운 삶을 관찰할 수 있고, 생전 처음 보는 얼굴 그러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장면들”¹⁾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

*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과 강사 (evergreen071@yahoo.co.kr).

1) Christophe Lefebure, 강주현 역, 『카페의 역사』, 효형출판, 2002, 148쪽.

이다. 또한 “살아있는 대화와 역동적인 삶이 있기에 예술가들은 카페에서 새로운 영감의 숨결”²⁾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작가 지망생들은 카페를 찾아가면 손쉽게 유명한 대가들을 만날 수 있었기에 자신의 작품을 평가받으려고 드나들었다. 그들은 혹독한 비판과 칭찬을 들으며 대가들과 서로 친분을 쌓길 원했다.

한국에서 카페의 등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3·1 운동 후이고, 먼저 일본인들이 명동(명치정)과 진고개(혼마치)를 중심으로 문을 열었다면 한국인들은 상권의 중심지 종로에서 시작했다.³⁾ 한국인이 직접 경영한 카페로는 영화감독 이경손씨(춘희, 장한몽 등의 영화를 감독)가 관훈동에 세운 ‘까까듀’⁴⁾이었다. 이곳은 영화예술인이 개업한 곳이라 영화배우, 화가, 문인, 유학생 등의 아지트나 다름없었다. ‘까까듀’를 계기로 도심 한복판에 문화 예술인이나 유학과 출신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카페가 연이어 생겨났다. 일본미술학교를 졸업한 배우 김용규와 심영은 ‘멕시코’ 다방을, 이 외에도 미술을 전공한 이순석씨가 ‘낙랑(樂浪)파라’를, 음악평론가 김관이 ‘엘리사’를, 여배우 복혜순이 ‘비너스’⁵⁾를 열었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클래식 음악 전문이나 레지(茶娘)가 접대하는 곳 등 다양한 특색을 지닌 카페와 다방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 메뉴도 커피뿐만 아니라 케이크, 홍차, 맥주, 레몬스쿼시, 양주 등 서구식 기호품이 제공되었다.

일제식민지 시대 근대의 카페는 지극히 사적이면서도 사회성과 도시성, 예술성을 띤 공간으로 특히 예술가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많이 애용되었다. 그 당시 카페는 이윤을 목적으로 장사를 한 것이 아니었

2) Christophe Lefebure, 앞의 책, 148쪽.

보들레르나 빈센트 반 고흐, 베를렌즈, 랭보, 헤밍웨이 등 예술가에게 카페는 내면적 표출이 자유로운 영역이었다.

3) 이경재, 『다큐멘터리 서울 定都 六百年』, 서울신문사, 1993, 24~25쪽.

4) ‘까까듀’ 명칭은 김진섭에 의해 이루어졌다. 가면(假面)을 활용한 실내장치와 조명은 정인섭이 담당했고 영화감독 이경손은 턱시도를 입고 차를 나르는 하이칼라였다고 한다(김병익, 『한국문단사』, 문학과지성사, 2003, 177쪽).

5) 이경재, 앞의 책, 25~29쪽.

기에 늘 적자였고 외상값이 더 많았다. 그렇지만 카페는 예술과 문학, 정치 등을 논하고 전시회나 출판기념회, 작곡발표 같은 조출한 문화행사의 장소로 안성맞춤이었다. 그러다 보니 근대문학 작품에도 카페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작품의 모티브가 되었다.

카페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면 시 분야에서 박정호의 「1920년대 시에서의 카페의 의미 고찰」⁶⁾이 있겠다. 논자는 카페를 사회적 공간이자 사회적 생산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카페의 미학적 혁명이 아방가르드나 다다이즘, 아나키즘 등과 연결선상에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관계맺음은 부정과 파괴, 창조와 신생의 미학을 낳았고 이에 부합된 공간으로 카페를 내세웠다. 그러나 사회적 접근은 시텍스트 분석에 있어서 시적 화자의 내면세계를 간과하고 말았다. 따라서 본고는 시적 화자의 카페체험의 내면화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카페나 다방이 등장하는 시텍스트의 범위를 확대시켜 고찰할 것이다.

소설 분야에서는 카페를 모더니즘적 특성과 관련된 공간⁷⁾이거나 카페 길에 대한 페미니즘적 담론⁸⁾을 언급할 때 부분적으로 논의될 뿐이었다. 소설은 특정한 공간적 배경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 유형에 대한 탐구가 가능한 장르이다. 따라서 본고는 카페를 출입했던 인간들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과 심리 및 태도 등에 천착하고자 한다.

2. 근대시와 카페 : 내면적 성찰과 몽상

근대적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지식인이나 예술가들에게

6) 박정호, 「1920년대 시에서의 카페의 의미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 제14집, 2001.

7) 조영복,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근대성과 일상성』, 다운샘, 1997.

나병철, 『근대성과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1995.

8) 나은진, 「이상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 - 양파 껍질 벗기기」, 『여성문학연구』 제6호, 2001.

카페는 서구문명의 상징이자 호기심과 동경의 장소였다. 일찍이 그들은 일본유학 체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카페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근대적 삶의 변화와 발맞춰 등장한 카페는 서비스 직업장인 만큼 상업성을 무시할 수 없을뿐더러 지식인들에게 지적과시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 지식인이나 예술가들은 카페에서 어느 정도 품위를 유지하면서 시대적 흐름을 토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적 근대성의 체험과 좌절감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모색하였다.

움거다 심은 棕櫚나무 밑에
 빗두루 손 장명등,
 카예 프란스에 가자.
 이놈은 루바쉬카
 또 한놈은 보헤미안 넥타이
 뺏적 마른 놈이 앞장을 섰다.

밤비는 뱀눈 처럼 가는데
 페이브먼트에 흐늑이는 불빛
 카예 프란스에 가자.

이 놈의 머리는 빗두른 능금
 또 한놈의 心臟은 벌레 먹은 薔薇
 제비 처럼 젖은 놈이 뛰어 간다.

『오오 패물(鸚鵡鳥) 서방! 꿈 이브닝!』
 『꿈 이브닝!』(이 친구 어떠하시오?)
 鬱金香 아가씨는 이밤에도
 更紗 커튼 밑에서 조시는구료!

나는 子爵의 아들도 아모것도 아니란다.

남달리 손이 히여서 슬프구나!
나는 나라도 집도 없단다
大理石 테이블에 닳는 내뺨이 슬프구나!

오오, 이국종 강아지야
내발을 빨아다오.
내발을 빨아다오.

- 정지용, 「카페 프란스」 전문⁹⁾

근대시에서 카페는 시적 화자의 자의식과 시대적 감수성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다. 위의 시는 정지용이 일본 유학 시절 드나들었던 이국의 낮선 카페를 둘러싼 풍경을 배경으로 시작된다. 실제로 당시 일본 교토에는 <프란스>란 이름의 카페가 있었다고 말하는 일본인들이 있다.¹⁰⁾ 이 시를 보면 카페를 찾았던 사람들이 주로 인텔리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주의 사상에 도취한 루바쉬카를 입은 사나이, 보헤미안의 정신을 추구하는 깡마른 이지적 남자가 카페에 등장한다. 이 시의 화자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유토피아적 환상을 꿈꾸며 미시적 공간인 카페 프란스로 들어서지만 페이스스에 젖어든다. 무언가 차단되어 음울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그들은 정상적이지 못한 존재로 표상된다. 머리는 “빛두른 능금” 모양 같고, “심장은 벌레 먹은 장미”처럼 시들어 있다.

시의 화자는 카페 프란스를 둘러싼 공간의 세밀한 관찰에 이어서 시선을 자신의 내부로 향한다. 낮선 이국땅 카페에 앉아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내던진다. 카페의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에서 “나는 子爵의 아들도 아모것도” 아니며, “나는 나라도 집도” 없는 상실감과 무기력에 빠진 자아와 부딪친다. 그 어떤 비상구를 적극적으로 찾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권태로운 자신을 남달리 흰 손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것이

9) 『學潮』 1호, 1926, 6.

10) 유종호, 『시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2, 24쪽.

일제 식민지 상황에 처한 지식인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식민지 인텔리에게 카페는 내적 진실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었던 공간이다. “열정과 분노의 발산처였으며 반성과 모색의 공간이자 좌절과 절망의 토로처”¹¹⁾였다. 또한 카페는 근대적인 문화생활의 영역이자 시적 화자의 정체성 탐구가 가능한 공간이었다. 김팔봉의 다음 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카페 椅子에 걸터안저서
회고한 팔을 썹내여가며
우·나로-드!라고 써들고잇는
六十年前的露西亞靑年이 눈압헤잇다……

Cafe Chair Revolutionist,
너희들의 손이 너머도 회고나!

회고한 팔을 썹내여가며
입으로 말하기는 『우·나로-드』……
六十年前的露西亞靑年の
헛되인 歎息이 우리에게 잇다-

Cafe Chair Revolutionist,
너희들의 손이 너머도 회고나-

너희들은 『白手』-
가고자하는 農民들에게는
되지도 못한 『味覺』이라고는
조금도, 조금도 업다는 말이다.

Cafe Chair Revolutionist,

11) 박정호, 앞의 글, 135쪽.

너희들의손이너머도회고나!

아아 六十年前的넛날,
露西亞靑年の『白手의歎息』은
味覺을죽이고서네려가서고자하든
全力을다하든 全力을다하든歎息이엿다

Ah! Cafe Chair Revolutionist,
너희들의손이너머도회여!

- 김팔봉, 「白手의 歎息」 전문¹²⁾

정지용이 「카페 프란스」에서 남달리 흰 손이 슬프다고 탄식했듯이, 김팔봉의 시 또한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실천성이 부족한 혁명론자의 모습을 회고 흰 손과 팔로 비유하고 있다. 이처럼 “손을 의식한다는 것은 생활인으로서의 무력감을 자성하거나 재확인”¹³⁾하는 것이다. 시의 화자는 “Cafe Chair Revolutionist/ 너희들의손이너머도회여!”라고 동위의 어구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시적 장치를 통해 프롤레타리아를 주창하며 누구보다 “우나로-드!”를 외쳤던 인텔리들이 결국은 카페 의자에서 그치고만 혁명론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 그들과 하나가 되고자 한 이념은, 현실적인 개혁도 변혁도 아닌 낭만적 환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즉 과거에 노서아 청년들처럼 방향 모색을 상실한 채 서성거리는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그쳐야 했다.

김기림의 「인텔리의 장래」에 관한 글을 보면 당시 인텔리의 어두운 자화상을 엿볼 수 있다.

『우나로드』의 소리를 그들 자신의 가장 궁박한 절실한 절

12) 『개벽』 48호, 1924, 6.

13) 유중호, 앞의 책, 27쪽.

규로서 가질 것이다. 아무 실천과 현실적 체험을 통하지 아니한 오직 입 끝뿐인 관념적 이론가 및 지도자로서 의식의 수준이 아직 低下하였던 군중 속에 명성을 博하고 있던 과거의 직업적 운동자 「타입」의 小「부르조아지 인텔리겐차」는 완전히 역사의 주도적 무대에서 청산되고 말 것이다. 집단의 내부에서 항상 「헤게모니」에 침을 흘리는 습관과 그리고 회피적 비겁성 등 小「부르조아 인텔리」의 諸屬性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 그의 『우나로드』의 소리는 의연히 잠꼬대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¹⁴⁾

김기림이 지적하고 있듯이 그들의 이념과 전략은 카페에서의 담화와 논쟁에 그친 것이다. 카페는 대중의 광장으로 과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밀실의 공간에서 “밤을 새워가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지껓이고 팔을 걷고 주먹으로 책상을 두드리고 흥분해 보았댔자 바위 덩어리같이 단단한 현실”¹⁵⁾에 앞장서지 못했던 인텔리의 연약한 내면성이 그대로 표출되었던 곳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혁명은 카페에서의 탁상공론에 그쳐야 했다. 이것이 당대 인텔리들의 현실적 모순임을 시적 화자는 고백하고 있다.

아아戀愛는 殺戮이다. 나는戀愛에 勇敢한 騎士이다.
나는 戰場으로나아간다. 『妄想으로부터 實現으로!』카페·프
란스로가자.

내 코앞에서 『술』이 舞蹈曲을 알외인다.
움겨다심은 棕櫚나무. 빗두루슨장명등.
『오! 나에게서술을주소!추립브 아가씨』—술.술.술.술.술.

<중략>

14) 김기림, 「인텔리의 장래」, 『신여성』 4호, 1933, 4.

15) 김윤식, 「과학주의와 감상 —김팔봉론」, 『한국근대작가론고』, 일지사, 1984, 63~64쪽.

意識의沸騰. 存在의戰慄!
나의體溫은 體溫計의限界를突破하여 二千八百度의高熱로 疾
走한다.

카페·푸란쓰로가자 테이블은 不等邊六角形 椅子는淫婦의
乳房 室內에자욱한 戀愛의 粉末.

서울·市街·白晝大道.

戀愛에失敗한 精神病者=DADA 金華山!

나는 테이블을쭈드리며 放聲大歌한다.

- 김화산, 「惡魔道-엇던싸싸이스트의 日記拔萃」 3연, 5연¹⁶⁾

김화산은 「惡魔道」를 소설로 발표했지만 연과 행이 명확하게 구분되
는 이 작품은 시로 보아야 한다. 누구보다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절실
함을 강조했던 만큼 독특한 시적 전략이 돋보인다. 그리고 이 시의 특
징은 정지용의 「카페 프란스」 일부인 즉 “옴겨다 심은 종려나무”, “빗두
루 손 장명등”, “카페 프란스로 가자” 구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페에서는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제약이나 감시를 받지 않기에, 있
는 그대로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며 고민하고 자유로이 발설할 수 있
었다. 「惡魔道」는 한 다다이스트가 친구의 애인을 사랑하면서 겪는 내
면심리와 갈등을 표출한 시이다. 자신에게 살육인 연애의 고뇌는 카페
라는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격렬한 감정이 극도에 달한다. “戀愛에 失
敗한 精神病者=DADA 金華山”은 “의식의 비등”과 “존재의 전율”에 휩
싸여 카페 프란스로 달려간다. 주체하기 힘든 감정을 달래기 위해 카
페 아가씨를 부르며 술을 요구한다. 그리고 방성대가(放聲大歌)하며
견잡을 수 없이 우울한 마음을 추스른다. 카페에서 시적 화자는 연애
도 힘겹고 다다이스트로서 세상의 모든 도덕과 정의를 변화시키고 싶

16) 『조선문단』, 1927, 2.

으나, 그렇지도 못하고 있는 분열된 자아를 발견할 뿐이다. 이러한 내면적 갈등과 모순에서 탈피하고자 몽상의 세계로 빠져든다. “테이블은 不等邊六角形”이며 “倚子是 淫婦의 乳房”라고 카페 실내는 자유로운 “戀愛의 粉末”로 가득하다고 감각화 한다.

『카페 판다라이』

불

불 불

불

色彩燈아래 움지기는 風景畫.

파-란 페퍼-민트속 그려진 幻想을

썬스탠스로 흐려바리는

루주 어엿분 입을 가진 웨이트리스.

이쪽 커-텐 밋해는

빠르간 넥타이 머리진 청년한놈

함부로 피아노의 키-를 두들기고

저쪽 테-블에선

술醉한 ××・××두사람

오늘도 쫓잡는 討論에 밤을 새이는구나.

- 김화산, 「一九三〇年 썬스風景畫의 破片과 젊은詩人」¹⁷⁾

이 시는 1930년 당시 카페의 모습을 한 폭의 풍경화처럼 그린 작품이다. “카페·판다라이”는 화려한 색채등 불빛으로 빛나고 “썬스탠스”로 유혹하는 웨이트리스가 있는 곳이다. 시인은 1연에서 “불”이라는 시어를 연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2연 역시 “파란”, “루주”와 같은 강

17) 『별건곤』, 1930, 5.

렬하고 원색적인 색채 이미지로 카페의 모습을 전경화한다.

그리고 이 시는 카페를 출입했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누구였는지 알 수 있게 한다. 빨간 넥타이를 맨 머리 긴 젊은 예술가가 피아노를 자유자재로 두드리며 예술적 열정에 들떠있다. 반면에 다른 테이블은 술 취한 사상가 두 사람이 토론에 열중하며 허무한 이상을 꿈꾼다. 시인의 예민한 감성에 포착된 카페는 자유롭고 센터멘털한 공간으로 그려진다. 폭력과 억압이 난무한 식민지 사회 속에 노출된 시인들에게 카페는 단순한 향락시설이 아니라 파라다이스였다. 왜냐하면 경직된 사회적 현실에서 일탈해 느슨한 태도로 자신과 타인을 마주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테이블과 의자를 사이에 두고 메뉴판에 적힌 음식과 음료를 주문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한결 가볍고 소탈하게 대화할 수 있었다.

십오전짜리 아이스크림 한그릇의 환대가 이리도크나
가보지도못한 모스크의 뒷골목같은 이 거리의 사랑스
러운 적은茶房—
문하나 들어서니 시언하기가 東海바다 같다.
- 이형교, 「茶房」 전문¹⁸⁾

또는 사랑을 잃는 젊은이들이
밀빠진 사랑의 항아니에다가
술-노래-우습일망정 마음껏 채우려고
덤비여드는 幻想의 故鄉
- 양운한, 「카-페」 2연¹⁹⁾

위의 두 시를 보면 카페나 다방이 시적 화자에게 더없이 좋은 낭만적 공간으로 그려진다. 첫번째 인용된 시는 부드럽고 달콤한 서구식 아이스크림처럼 서비스가 좋은 다방에서 즐거운 몽상의 세계에 빠져

18) 『조선중앙일보』, 1936. 8. 29.

19) 『조선중앙일보』, 1934. 6. 24.

든다. 자신이 가 본적 없는 ‘모스크’의 환상에 젖어드는가 하면, 뜨거운 여름날 동해바다에 온 것처럼 시원스런 공간이 돼 주는 것이 다방임을 인식하고 있다. 단적으로 시적 화자는 “사랑스러운 다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두번째 시 역시 열정으로 가득한 젊은이들이 사랑을 잃고 찾아드는 곳이 카페임을 밝히고 있다. 그들은 공허한 마음을 술과 노래, 웃음으로 채우기 위해 “환상의 고향”같은 카페의 문을 두드린다.

카페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메뉴는 커피이다. 커피는 미각과 신경을 자극시키는 카페인 성분이 함유된 감각적인 서구식 기호품이다.

오- 나의 戀人이여
너는 한 개의 『슈-크림』이다.
너는 한 잔의 『커피』다.

너는 엇지면 地球에서 아지못하는나라로
나를 끌고가는 무지개와가튼 김의 날개를 가지고 잇느냐.

나는 억개에서 하로동안의 모-든짓그러운 義務들을
나려주는 짐푸는人夫의일을
너는 『칼리오키아』의 어느埠頭에서 배워왔느냐.

- 片石村, 「커피 齣을 들고」 전문²⁰⁾

이국적인 정서가 물씬 풍기는 커피는 지식인이나 예술가들에게 근대 문명의 경험이자 상상력의 소산이었다. 시인의 정서를 가시화하고 구체화해주는 커피는 새로운 의미 발생의 자장이 된다. 위에 인용된 김기림의 시를 보면 커피를 ‘너’라고 지칭하며 매우 친근한 존재로 받아들인다. 이 시는 1연의 1행을 “오-나의 연인이여”라는 감탄사로 시

18) 『신여성』 7권 8호, 1933, 8.

작한다. 그리고 2행과 3행은 연인과 같은 존재가 바로 “커피”라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연과 3연은 커피가 시적 화자에게 인식의 깊이와 넓이 그 자체가 된다. 시적 화자는 따뜻한 커피와 함께 몽상에 잠긴다. 커피는 시적 화자를 지구에서 알지 못하는 환상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만들고, 무지개처럼 행복과 설렘을 가져다준다. 또한 “짐 푸는 인부들”처럼 책임과 의무로 고단했던 하루 일과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끄는 존재이다.

당대 예술가들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음미하며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곳에서 편안한 자세로 마음껏 클래식이나 재즈 음악을 듣기도 하고 담소를 나눴다. 또한 창작의 발상지가 되곤 했다.

3. 근대소설과 카페 : 카페 여급과 무기력한 지식인의 생태

1920년대 일본에서 수입된 다방, 바, 카페 등 새로운 유흥점이 경성 바닥에 생기기 시작²¹⁾하면서 ‘모던 보이’들은 커피와 차, 술을 마시러 들락거리는 풍조가 허다했다. 이런 유행의 흐름에 발맞춰 그 당시 소설가들의 작품에도 근대적 도시 풍경의 일환으로 카페가 공간적 배경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카페에서 돈벌이를 하는 여급들과 그곳을 가까이 했던 지식인들이 주요 등장인물로 제시되었다.

유학과 지식인이나 예술가들은 일본에서 이미 카페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신의 경험이 작품 속에 묘사된 것으로 염상섭의 『만세전』이 있다. 이 소설을 보면 조선 유학생들이 일본 카페 여급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알 수 있다. “조선 유학생이라면 돈 있는 집 자질이요, 인물 좋다고 동경바다서 평판이 좋으며, 문과 대학생이 이런 데에서는 장을 치는 태평시대”²²⁾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들이 카페를

21) 조영복, 앞의 책, 115쪽.

22) 염상섭, 『만세전』, 『한국문학전집』, 학원출판공사, 1999, 285쪽.

찾곤 했던 이유로는 조선에서 온 학생이라는 냉대와 차별을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문과 유학생 이인화는 동경에 위치한 단골카페에서 여급으로 일하는 시즈코 상(靜子)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시즈코 상은 계모와의 불화와 부친의 몰이해로 인한 복잡한 가정사와 실연의 아픔으로 가출한 여성이다. 그러나 그녀는 고등교육을 받았고 문학서적을 탐독할 정도로 신여성이다.

영리한 계집애요 동정할 만한, 카페의 웨이트레스로는 아까운 계집애다라고 생각은 하였어도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정열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같은 값이면 정자를 찾아가서 술을 먹는 것이요, 만나면 귀여워해줄 뿐이다. 원래가 이지적·타산적으로 생긴 나는 일시 손을 대었다가 움칠 수도 없고 내칠 수도 없게 되는 때는 그 머릿살 아픈 것을 어떻게 조처를 하나? 하는 생각이 앞을 서는 동시에, 무슨 민족적 감정의 구덩이가 사이에 가로놓인 것은 아니라도 이왕 외국 계집애를 얻어 가지고 아깝게 스러져 가려는 청춘을 향락하려면 자기에게 맞는 타입을 구하겠다는 몽롱한 생각도 없지 않아서 그리하였다.²³⁾

이인화는 그녀를 좋아하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복잡해지는 것이 싫고 단지 즐겁게 지내고 싶을 뿐이다. 유학생 이인화가 일본 사회에서 느끼는 것은 조선인이 분명 소외자라는 인식이다. 그는 시즈코가 “세상이 경멸하는 조선청년에게” 사랑을 운운하는 것도 어찌면 사랑의 상처를 안겨준 일본남성에 대한 반항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인화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다. 그에게 유일한 즐거움은 집에서 보낸 돈이 생기면 M軒(軒) 카페에 가서 자신의 감정을 발산하는 것뿐이다.

23) 염상섭, 앞의 책, 292쪽.

근대소설 작품에 나타난 카페는 근대적 도시 풍경과 식민지 지식인의 우울한 내면의식과 일상생활이 표출되었던 공간이다.

박태원의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소설가인 구보가 느끼는 고독과 우울함이 거리가 아닌 카페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갑자기 구보는 벗이 그리워진다. 이 자리에 앉아 한 잔의 차를 나누며, 또 같은 생각 속에 있고 싶다 생각한다……”²⁴⁾며 그 어느 곳에서도 소속되지 못한 채 걸도는 자신과 마주한다. 한편으로는 소설가의 입장에서 “그 중 구석진 테이블. 그 중 구석진 의자. 통속작가들이 즐겨 취급하는 종류의 로맨스의 발단이 그곳”²⁵⁾ 즉 카페에서 일어난다며 조소 섞인 태도로 바라본다. 그리고 구보는 가배차(珈琲茶, 커피coffee의 음역)와 33전에서 37전에 파는 맥주를 마시면서 카페 여급들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표현한다.

구보와 벗과 그들의 대화의 대부분을 물론 계집들은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능히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듯이 가장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니었고, 또 사람은 그들의 무지를 비웃어서는 안된다.²⁶⁾

이 작품은 특히 소설가가 접한 카페 공간과 그 곳이 생계 터전인 여급들의 일상성을 관찰하고 있다. 그녀들이 설사 지식인이 내뱉는 말들을 모른다해도 무시하거나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이 점은 소설가 구보가 생계비를 벌기 위해 애써 가장된 모습으로 손님을 접대해야 하는 여급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이 담긴 것이다.

실제로 박태원은 「성탄제」, 「길은 어둡고」, 「비애」, 「골목안」 등의 소설에서 카페 여급들의 일상생활을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다. 먼저 「성탄제」를 살펴보면 작품의 핵심인물은 언니 영이와 동생 순이다. 여동

24)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박태원 소설집』, 깊은샘, 1998, 34쪽.

25) 박태원, 앞의 책, 54쪽.

26) 박태원, 앞의 책, 72쪽.

생 순이는 고등교육을 받고 있다. 반면에 언니 영이는 카페 여급으로 일하며 가족들을 부양한다. 그러나 정작 가족 구성원은 영이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 영이는 특히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는 동생 순이와의 갈등이 크다. 순이는 언니 영이가 카페 여급이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동네 창피한 일이고, 학교 친구들에게도 소개하기를 꺼려하는 부정적인 존재로 바라본다.

결핍하면 자기가 바루 우리들의 희생이나 된 것처럼 떠들어 버티지만, 그래, 참말 자기가 하기 싫은 노릇이면야 단 하루라도 할 까닭이 있나? 술먹구, 남자들하구 희롱하구, 그러는 게 자기는 역시 재밌어서 그러는 게지 뭐야? 그렇지 뭐야? 그래 참말 맘에 없는 게면 왜 가끔 밤중에 부랑자는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누가 언제 그런 짓까지 해서 돈을 벌어 달랬어?27)

그러면서도 동생 순이는 학비며 옷값 등을 요구하며 언니가 일하는 카페로 찾아간다. 영이는 돈이 필요할 때만 자신을 찾는 동생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야속하다고 한탄한다. 영이는 남들처럼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는 평범한 여자이다. 이런 소박한 희망을 현실화하고 카페 여급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한 남자를 선택한다. 그러나 영이는 자신이 사랑한 전기상회 주인의 아이를 임신한 채 버림받는다. 정작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남자가 주고 떠난 오십 원의 돈뿐이다. 카페 여급의 직업 여성은 결국 가족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존재이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 사는 가정생활도 순탄치 않음을 보여준다.

이 소설의 반전은 언니를 비판하던 동생 순이가 카페 걸로 전락한다는 사실이다. 순이는 미혼모가 된 언니를 대신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카페 걸로 나선다. 이러한 반전은 자본의 피해자이자 소외자가 여성이 된다는 사실이다.

27) 박태원, 「성탄제」, 『박태원 소설집』, 깊은샘, 1998, 83쪽.

근대와 카페는 묘한 교차점을 이룬다. 바로 카페는 식민지 근대사회의 모순된 측면이 노출되는 공간이다. 카페 여급은 근대화가 만든 그늘진 그림자임을 대변해준다. 박태원의 소설 「길은 어둡고」에서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향이’다. 그녀는 카페에서 ‘하나짱’으로 불린다. 나이는 만으로 치자면 열 여덟이지만 이미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아버렸다. 아버지는 노는 계집과 눈맞아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연초공장에 다니다 폐병으로 죽게되자 그때부터 고생살이가 시작되었다. 향이 자신은 비록 카페 여급으로 일하지만 한 남자를 향한 일편단심은 누구보다 순정적이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하지만 순수한 사랑마저 송두리째 배반당한다. 향이가 몸과 마음을 허락한 남자는 나중에 자신이 아내와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이라고 고백한다. 중산 계급의 남자는 그럴듯한 말로 향이를 달래지만 그녀의 소박한 꿈은 무너지고 만다. 결국 남부끄러운 첩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다. 향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노는 계집과 눈맞아 떠났을 때, 아버지보다 더 증오했던 그 여자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향이는 첫정을 준 남자 곁을 떠나 군산바닥에 위치한 카페로 일하러 떠난다. 그녀는 자신이 일하던 카페에서 진 빚 이백칠십오원을 갚아주고 의상 및 기타 등의 준비로 일백 환 돈을 주겠노라는 낯선 사내의 유혹보다, 사랑이 식어버린 유부남과의 동거를 끝내려는 마음으로 군산행을 택한다. 또한 그 길이 불안하고 어두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카페 여급 외에 딱히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박태원의 이 작품은 불빛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질퍽한 삶의 터널을 걷는 카페 여급의 생태와 내면의식이 잘 표현되어 있다.

카페 여급은 기생들보다 모던하고 신여성들처럼 부담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사랑이란 말을 토하고 자유연애를 동경²⁸⁾하였다.

28) 김병익, 앞의 책, 201쪽.

특히 지식인 남성들의 좌절감과 비애를 고스란히 받아주는 자유연애의 대상자였으며, 무기력한 그들의 생계를 돕는 조력자이기도 했다.

카페 여급은 자신의 본명이 아닌 일본식이나 서양풍의 가명을 사용한다. 김유정의 소설 「따라지」에 나오는 카페 걸은 사람들이 카페에서 일한다고 넘볼 수도 있고, 조선말로 부르면 흥해서 ‘아키코’라는 가명을 쓴다. 그녀는 사직골 꼭대기에 올라붙은 낡은 초가집에서 월세로 거주한다. 카페 걸인 아키코는 같은 주인집에 세 들어 사는 ‘톨스토이’라는 별명을 가진 소설 쓰는 남자를 짝사랑한다. 그 남자는 공장에서 뼈빠지게 일하는 누님과 살면서 끊임없이 들볶인다. 아키코는 그런 톨스토이가 한편으로는 바보 같지만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감싸주고 싶어한다. 그가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도와준다. 그러나 톨스토이의 반응은 냉담하다. 아키코는 자신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건 카페 여급이라는 신분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비애를 느낀다. 그녀는 여자고보를 중도에 퇴학할 수밖에 없었던 힘든 과거를 되돌아보며 고단한 삶에 씩씩해 한다. 반복되는 궁핍한 생활 때문에 가혹한 운명의 질곡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키코와 그의 동료 영애는 카페 걸로 일하지만 플라토닉한 사랑을 지향한다. 그러나 정작 그녀들은 현실사회에서 얼마든지 돈으로 살 수 있는 소비사회의 상품처럼 사사로이 취급받는다. 즉 주어진 현실적 상황과 생존조건은 육체적, 물질적으로 맺은 남녀관계일 뿐이다.

근대사회와 함께 탄생한 카페는 위에서 제시한 작품들처럼 직업 여성의 소외된 삶뿐만 아니라 그곳을 들락거리는 남성들의 왜곡된 실상을 보여준다.

유진오의 소설 「나비」는 남편과 아내의 극단으로 치닫는 뒤틀린 관계가 돋보인다. 남편은 가정에서 원하는 바람직한 남편상과 거리가 멀다. 그는 전문학교 졸업자이지만 취직자리 하나 구하지 못하고 밤낮 거리를 돌아다니는 생활무능력자다. 반면에 아내는 카페에 나가서남자들을 상대로 생활비를 벌어들인다. 아내는 카페 여급이 결혼한 여자가 갖기에 적절치 못한 직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택했다. 게다가 남편

은 카페에서 ‘프로라’로 불리는 아내가 밤늦도록 여러 사내를 상대로 웃고 떠들다가 집에 돌아와도 잔소리는커녕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한다. 오히려 남편 김대진은 프로라가 벌어진 잔돈푼으로 자신도 역시 카페나 술집 등을 전전하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다.

프로라가 지금 가게로 처음 나올 때에도 형식상으로는 동무의 권청으로 프로라가 스스로 움직인 것이 되어 있지만 좀 더 따져 보면 그것도 남편이 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프로라 자신이 이런 세계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니 프로라에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남편 된 사람으로서는 도리어 그런 것을 말렸어야 할 것인데 그는 프로라의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 글썽 그래? 그럼 그것두 좋지 하는 식으로 우물쭈물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²⁹⁾

아내가 집 앞에서 다른 사내와 애정행각을 벌여도, 남편은 끝까지 묵묵부답과 방일의 태도로 일관한다. 이것은 비정상적이면서 도착된 부부 관계맺음이다.

“일제 군국주의의 심화는 지식인들에게 좌절과 실직 등에 처하게 했고, 관계의 비정상성”³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차단시켰다. 인텔리 남성은 식민지 사회에서 주체성의 상실을 겪어야 했다. 또한 그들은 철저히 사회에서 폐쇄당한 존재로서 자기결정권이 제한적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실업자가 태반이었다. 이에 대한 탈출구로 그들이 찾은 곳이 카페였다.

작가는 여주인공 프로라의 시선을 통해 남성들의 실상을 드러낸다. 카페를 출입하는 남자들은 자신을 예술가나 회사원 등으로 사칭하며 카페 여급들의 흠모와 환심, 애정을 얻고자 한다. 카페 여급들 또한 분위기 있고 지적인 남성과의 자유연애를 지향한다. 프로라 역시 남편

29) 유진오, 「나비」, 『한국소설문학대계』 16, 동아출판사, 1996, 205쪽.

30) 조영복, 앞의 책, 134쪽.

있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내들에게 무책임한 흥미를 갖는다. 그녀의 첫 번째 사내는 화가라는 예술가를 사칭한 ‘이종식’이다. 남자는 프로라에게 그림의 모델이 되어 줄 것을 간청하며 성적으로 유인하지만 헤프닝으로 끝난다. 프로라의 동료 카페 여급 ‘사다코’와의 관계로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자 줄행랑을 친다.

프로라에게 다가온 두 번째 남자는 회사원을 사칭한 ‘오금동’이라는 인물이다. 남자는 그럴듯한 말로 칭혼하지만, 이내 정체가 탄로나 카페에 나오지 못하게 된다. 그 밖에도 ‘최’라 불리는 사내는 뚜렷한 직업도 없이 프로라의 동료 카페 여급인 ‘게이코’에게 달라붙어 유흥비를 마련한다. 생활무능력자인 그는 유흥비가 떨어지면 ‘게이코’에게 뺏어다 쓰면서, 또다른 여급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바람둥이다. 이 소설은 카페라는 공간에서 돈을 버는 카페 여급들뿐만 아니라 그곳을 드나든 남성들 또한 불구화되고 왜곡된 존재들로 그려져 있다.

소설가 이상에게 카페는 특별하다. 그는 실제로 카페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직접 경영했던 사람이다. 폐결핵 때문에 황해도 배천 온천으로 요양을 갔다가 금홍이라는 운명의 여인을 알게 된다. 이상은 기생 금홍이를 데리고 돌아와 다방 ‘제비’를 개업했다. 그리고 인사동에 ‘쓰루(鶴)’를 열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의 일상사적인 모습에서도 드러나듯이 카페는 작품 곳곳에서 등장한다.

소설 「지주회시」에서는 주인공 ‘나’의 아내가 카페 여급이라는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 나온다. 아내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 카페 여급이 되었다. 그런 아내는 날이 갈수록 비쩍 말라간다. 하루하루 시들어 가는 아내를 지켜보는 것은 남편으로서 고역이다. 그러나 정작 ‘나’는 아내에게 해 줄 수 있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오히려 아내를 앞장세워 R카페 회관 주인으로부터 백원을 얻어 쓴다.

오늘밤에는 아내는또몇개의그런은화를 정강이에서배알아놓으려나그북어와같은종아리에난돈자국-돈이살을파고들어가서-

고놈이아내의정기를속속들이빨아내이나보다. ...<중략>... 아내
야, 대체 내가무엇인줄알고죽지못하게이렇게먹여살리느냐³¹⁾

아내의 약한 정기마저 빨아먹는 대상은 돈이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내를 구출할 방도가 없는 무능력자이다. 따라서 뚜렷한 대안이나 생계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비웃는 것뿐이다. ‘나’는 좌절감에 휩싸여 한없이 나태해지고 무기력한 일상생활 속으로 침윤한다.

생명에 뚜껑을덮었고 사람과사람이사귀는버릇을달았고 그자신을달았다. 온갖벗에서.....온갖관계에서.....온갖희망에서온갖慾에서.....그리고온갖욕에서.....다만방안에서만그는활발하게 발광할수있었다.³²⁾

‘나’는 결국 퇴행적인 자폐 상태를 자청하고 타인과의 일상적인 관계마저 포기하고 방안으로 숨어든다. 그리고 ‘나’는 아내의 고충마저 차갑게 외면하는 에고이스트가 된다. 아내가 층계에서 굴러 떨어져 카페주인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갔을 때도, 아내를 두둔하기보다는 그런 일에 자신이 휘말리는 것 자체에 짜증을 낸다. 아내가 아파서 밤새 시름소리를 내도 잠만 잔다. 그리고 아내가 층계에서 굴러 떨어져 받은 20원을 가지고, 10원은 술값으로 사용하고 10원은 통통한 ‘마유미’ 여급에게 팁으로 줄 상상을 한다. 또한 아내가 한번 더 층계에서 굴러 떨어주길 바란다. 이것은 보편적이고 평범한 부부의 관계라 볼 수 없다. ‘나’는 아내 및 타자와의 관계, 자신의 희망 등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거나 회피하며 탈출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폐쇄적인 ‘나’의 심리와 태도는 역설적이다. 그래서 더욱더 씁쓸함을 자아낸다.

31) 이상, 「지주회시」, 『한국소설문학대계』 18, 동아출판사, 1995, 48쪽.

32) 이상, 위의 책, 41쪽.

4. 맺음말

도회적이고 이국적인 카페는 식민지 사회에서 소외자로 살고 있던 지식인이나 예술가들에게 특별했다. 그들은 일본유학 중에 서구식 카페 공간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경험이 밑바탕에 깔린 시와 소설 작품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에게 카페는 일제의 검열을 피할 수 있는 곳이자 자신들의 꿈과 이상 및 예술에 대한 열정을, 사상에 대한 확신을 마음껏 발설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시작품에서 부각된다. 정지용, 김팔봉, 김화산의 작품에서 파악할 수 있겠다. 시적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파고들며 진지한 성찰을 하지만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행동전략과 실천을 모색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시인 특유의 몽상의 세계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고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차와 술과 음식이 나오는 카페에서 펼쳐졌다. 그것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소박한 즐거움이었다. 또한 시의 특성인 섬세한 비유와 감각으로 당시 카페의 풍경 및 그곳을 출입했던 사람들의 표정과 모습들을 세밀히 묘사했다.

소설 작품들은 주로 카페라는 공간에서 생존조건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여급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근대 사회에서 카페의 주고객인 무기력한 지식인들의 생태를 포착하였다.

박태원의 소설 「성탄제」, 「길은 어둡고」는 카페 여급으로 살아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에 초점을 맞춰 그들이 떠맡아야 할 비참함과 내면적 갈등을 표출하였다. 이들 카페 여급은 매춘부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삶에서 좀처럼 빠져 나오질 못한다. 이것이 근대사회의 모습이며 그 희생자로서 카페 여급을 제시한 것이다.

이 외에 유진오, 김유정, 이상 소설 등은 무직 인텔리의 무기력한 자아가 비정상적인 관계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그들은 지식인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게으르고 나태한 일상으로만 도피한다.

그들의 유일한 위안은 카페에 드나들며 지식계급을 동경하는 여급과 그럴듯한 연애를 하거나 거리를 헤매는 일이다. 그리고 카페 여급에게 의지해 생활비와 술값을 충당한다. 이와 같은 모순과 일탈은 카페라는 공간을 주무대로 펼쳐졌다.

주요어 : 근대시, 근대소설, 카페, 카페 여급, 무기력한 지식인, 내면 의식, 식민지 시대.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팔봉, 「白手の 歎息」, 『개벽』, 1924, 6.
김화산, 「惡魔道 - 엇던싸싸이스트의 일기 拔萃」, 『조선문단』, 1927, 2.
——, 「一九三〇年 싸스風景畵의 破片과 젊은 詩人」, 『별건곤』, 1930, 5.
정지용, 「카예 프랑스」, 『學潮』, 1926, 6.
양운한, 「카 - 페」, 『조선중앙일보』, 1934, 6. 24.
이형교, 「다방」, 『조선중앙일보』, 1936, 8. 29.
염상섭, 「만세전」, 『한국문학전집』, 학원출판공사, 1999.
박태원, 『박태원 소설집』, 깊은샘, 1998.
유진오, 『한국소설문학대계』 16, 동아출판사, 1995.
이 상, 『한국소설문학대계』 18, 동아출판사, 1995.

2. 국내외 논저

- 김기림, 「인텔리의 장래」, 『신여성』, 1933, 4.
김병익, 『한국 문단사』, 문학과지성사, 2003.
박정호, 「1920년대 시에서의 카페의 의미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 연구』 14집, 2001.
유종호, 『시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2.
이경재, 『다큐멘터리 서울 定都 六百年』, 서울신문사, 1993.
조영복,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근대성과 일상성』, 다운샘, 1997.
Christophe Lefebure, 『카페의 역사』, 효형출판, 2002.

Abstract

Modern Literature and Café

Park, Sook-Young

T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into what café means in the Korean modern literature including poems and novels. In the early modern society, café was a private place but it did have urban, artistic, and social nature. In Korea, café emerged immediately after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Cafés run by Japanese people were first developed in Myeong-dong and Jingogae, and later, a café called 'Ccacca-due' appeared and was run by a Korean movie director named Gyeong-son, Lee. At that time, in Korea, cafés were developed with a focus on men of culture and art and on intelligent men having studied abroad. So, cafés were not set up for the commercial purposes. They were an urban, exotic and special place for contemporary intelligent men and artists who were isolated from the society at that time. To them, a café was a space where both aesthetic modernity and frustration could be experienced and the gloomy inside of intelligent people revealed.

Such an inclination can be easily attested in modern poems. The works of Ji-yong, Jeong, Pal-bong, Kim and Hwa-san, Kim describe in detail the atmosphere of cafés and the appearances and internal life of the customers of cafés. Moreover, a café was a place where a modern life was developed and speakers in poems could reflect the inside of them. Subsequently, it is natural that their internal truth was expressed in

poems. Poems describe the agonies of intelligent people who could not take more active actions and measures. Day dreams unique to poets were imagined in a café where they could contemplate on anything without being disturbed by anyone else while listening to music and drinking coffee, which was small consolation for them.

Stories of novels graphically describe the daily miserable life of the waitresses who could not help making a living in a space of café. In particular, novels written by Tae-won, Park present the tired and prostitute like life of café maids who did not have any alternatives to living on café customers. they are also a dark self-portrait of modern society and capitalism. Furthermore, the novels written by Jin-o, Yu and sang, Lee portray the modes of life of spiritless intellectuals, who were customers of café. They just drank wine in a café while idling away their time and doing nothing for their society, made love with café maids who adored intelligent men, or just wandered about in the street. At last, they ended up their life in an eccentric manner.

Key words : modern poem, modern novel, café, waitresses, intelligent men, internal, the colonial period.

논문투고일 : 3월 15일
 심사완료일 : 4월 9일
 게재결정일 : 4월 18일